

# 세계인 차문화 축제, 한국서 열린다

## 18~19일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개최

세계인들의 차문화 축제인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세계선차문화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환)는 10월 18-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4월 한국 <차의세계>가 발기한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는 2005년 10월 중국 허베이성 백련사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중국과 대만에서 열려왔다.

‘세계 속의 한국 선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개막한다. 이어 한국 국제선차문화연구회와 하동녹차연구소의 공동 주관 하에 세계선차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청두 대자사 방장인 대은(大恩) 스님이 ‘무상 선사와 대자선차’ 발제를 통해 한국의 입당구법승인 무상 선사가선차일미 사상의 원류라는 사실을 학계에 제기할 예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은 스님은 ‘신선소각사지(新選昭覺寺志)’를 소개하며 무상의 선차지법을 학계에 처음 알린 바 있다.

이밖에 국내외의 18명의 학자들이 열띤 발표를 이어간다. 대회에는 40여 논문이 접수돼 발표선별과정을 거친 상태다.

한국 측에서는 기초 강연으로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이 ‘고청규를 통해 본 한국선가의 차생활’을 발표한다. 의정 스님은 <선원정규> 발간사 선가의 차생활을 주장한 바 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경봉성적의

국내 최대규모 차 관련 학술세미나 ‘무상선사와 대자선차’ 눈길 끝dot 한국종교 40여 논문, 18명 학자 나서 고궁서 차시연회, 보성 차순례 진행

선다일미론’을 통해 조주 깎다거품이 한국 차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경봉 선사 의 염다래 정신을 통해 본 다선일미를 되짚어 본다.

최석환 불교춘추사 사장 또한 ‘한국 선차문화의 역사와 미래’를 통해 10여 년간 중국을 오가며 느낀 한국선차문화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차의 시원을 밝히는 가야차에 대한 소고, 고려시대 연고차, 한국차민요, 일원상이 원불교차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선시대 선다매 등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2011년 항저우 영은사에서 열린 제6회 대회에서 펼쳐진 차 시연회.

중국 측에서도 중국차연구가 구단 선생은 태고보우와 석유 청공의 사승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며 지주사법대 윤문환 교수가 조주의 깎다거품 철감도유를 들고 나와 철감도유 선사의 다선일미 정신을 발할 예정이다. 같은 대학의 전동환 교수는 남전사지의 사자산문의 발원지를 소상히 짚는다.

일본 측에서는 쿠라사와 유키히로 교수가 ‘원오극근의 다선일미’, 쿠라사와 교수가 ‘원오와 슈코 그리고 리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가 열린 18일 오후 4시에는 서울 고궁에서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두리차

회가 열린다. 19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4개국 15개 팀이 선보이는 세계선차 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6시 30분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폐막식이 거행된다. 이날 자리에서는 차기 대회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20-21일에는 후속 행사로 참가자 일동이 하동 보성 차 산지를 순례하고 한중일 차문화교류와 함께 보림사에서 한다의식을 봉행한다.

최석환 세계선차문화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선차는 차문화와 불교의 접합점”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태허 스님 탄신 108주년 기념 행사

관음종, 10일 학술대회 관음보살상 점안...<이것이 참불교다> 봉정

“우리들은 겨레를 위해 눈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방과 민족분단의 혼란기에도 민중의 깨침과 불멸홍포에 앞장섰던 선지식, 태허 홍선 스님. 태허 홍선 스님의 탄신 10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관음종 주최 하에 10월 10일 낙산 묘각사에서 봉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진행한 ‘태허조사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에서는 이평래 총남대 명예교수, 신구탁 연세대 교수, 차자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양승규 동국대 연구교수, 최봉수 동국대 박사, 김경직 진각대학원 교수가 주제발제했다.

이날 이평래 명예교수는 “태허 스님의 불입종은 애국, 애민, 자유, 협동의 투철한 국가정신을 드러냈다”며 “승려 중심이 아닌 출세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태허 스님은 1930년 경운 선사를 은사로 출가해 4년간 유학 후 1940년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했다.

한국전쟁 직후 1956년 서울로 돌아온 태허 스님은 1957년 일승불교현정회를 조직하고 1958년부터 2년간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거리 설법을 펼쳤다. 1965년에는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불입종을 창종했으며 1988년 관음종으로 개명된다.

김경직 위덕·진각대 겸임교수는 “태허 스님의 민족의식은 1911년 임제종 대표를 지낸 은사 경운 선사의 영향이 컸다”며 “관음종은 애민애족, 승속일체의 태허 스님의 정신을 이어 대중종단으로 사회구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음종은 학술행사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태허홍선 스님의 다례재를, 오전 11시 11면42수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다례재에서는 한글법문집 <이것이 참불교다>의 봉정식이 열렸다. <이것이 참불교다>는 태허 홍선 스님의 법문을 한글 세대에 맞춰 풀어 쓴 ‘불종대의 해제’와 한국 천태종과 법화종 법맥을 푼 ‘해동천



태허 홍선 스님 생전의 모습.

대법화종법맥소고 해제’를 담은 책이다.

또, ‘불종대의에 나타난 태허 홍선의 출세론회 사상’, ‘불종대의를 중심으로 본 태허조사의 교판론 이해’, ‘불종대의 제3항 신앙문에 대한 일고찰’, ‘관음종(불입종) 창종과 그 의미’ 등 태허홍선 스님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한 연구논문이 함께 실렸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대회를 통해 “태허조사 탄신 108주년을 맞아 조사스님의 숭고하신 뜻과 삶을 기리고자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그 결실을 책자로 묶어 세상에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천태종 前 총무원장 정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해정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관계자, 미야바시 쇼겐 일한불교협의회 회장 등 일한불교협의회 회원들, 주요영·김장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실크로드는 불교 통한 韓流 전파길”

‘실크로드 속 한국불교’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서역 문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어 스님을 비롯한 구법승들의 활동을 통해 실크로드 지역에 전해진 한류문화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 12-13일 이틀간 고려대 백주년기념상설관에서 열린 ‘실크로드와 한국불교 문화’ 국제학술회에서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는 7-10세기 중국불교 전개과정에서 한국불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석길암 교수는 “한국 구법활동의 흥성기(590-907)에 입당한 승려의 수는 185명으로 해동불교인들이 외국 불교보다 불교 중국의 활동에서 압도적으로 능동적인 참여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7세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해동출신 승려는 44명, 8세기 44명, 9세기 98명”이라며 “당 전기 고승을 기록한 <고승전>을 보면 440명의 고승 중 해동출신 이 20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석 교수는 해동불교인으로 능동적인 활

동을 펼친 가장 대표적인 이로 원효와 원흥 스님을 꼽았다. 석 교수는 “특히 원효의 저술들은 7세기 말의 법장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질 정도”라며 “1126년 고려 사신들이 사명 연경사의 범광 스님을 방문해 범의 1점과 원효가 찬술한 룬소 200권을 전해 중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원효의 저술이 중국불교계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는 ‘동아시아 고성(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재고’ 주제발표에서 실크로드 사막남도와 동아시아 고성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는 “실크로드 사막남도에 위치한 고대 오아시스 국가와 중국 남북조시대, 그리고 한국의 삼국시대는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며 “북쪽으로부터 매장지, 불탑, 왕성의 순으로 지어진 구조는 중국 남북조시대, 특히 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 한국에서도 역시 왕성 내에 사원이 형성되



니아바탈을 조사하는 한지연 교수 등 연구팀

어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사막남로 지역의 불교문화재, 특히 탑의 조성양식이 간다라를 중심으로 한 인도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특히 누란과 미란을 잇는 지역은 수로를 통한 교역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정산 스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의 간본에 관하여’(임상희) 등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문화 전파를 조명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 삼화사 수록재 학술심포지엄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재대보존회(회장 원명)는 10월 18-21일 삼화사 경내에서 국행수륙재(國行水陸大齋)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수륙재와 더불어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전통성과 그 구조적 의미’ 학술심포지엄이 18일 오전 10시 삼화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삼화사 수록재 실행의 역사성과 의미’를, 한상길 동국대 교수가 ‘근현대사의 수록재 변화양상’,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국행수륙재와 어산작법’,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이 ‘국행수륙재와 수인작법’, 김태연 대구대 교수가 ‘불교의례와 지화장엄’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이즈오카 테츠야 일본 속덕대학교 교수가 ‘수록재의 사회학’, 김선풍 한중대 석좌교수가 ‘불교민속’, 윤광봉 일본 히로시마대 명예교수가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예능적 성격’ 등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10일 열린 태허 홍선 스님 추모 다례재에서는 미야바시 쇼겐 일한불교협의회 회장 등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 죽음과 삶 우주본성파동치유명상법

몸·마음·정신을 동시에 치유하는 신비한 몸의 체험 건강이란? 몸과마음과정신의 의견이 일치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난치병과 불치병은 몸을 지배하는 무의식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우주본성을 통한 파동으로 우뇌의 자극을 통하면 나의 몸이 저절로 아픈곳을 치유하는 동작이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 동작이 우뇌의 수용력과 가피의 파동에너지와 교감하여 전기나신비한 빛의 형태로 나온다 - 황금빛, 녹색, 다양한 빛의 에너지

초월의식은 나의 본성과 자아 불성이 존재한다. 무의식은 몸의 자율신경계와 영가장애와 과거의 업식과 삶의 해결과제가 있다.

자신과 영혼 파동치유의 7 단계 = 1.부정 2.분노 3.타협 4.의기소침 5.수용 6.치유 7.새로운 삶의 변화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알수없는 신비한 가피 스님이나 불자님중에 몸이 불편하신분들을 위한 부처님 가피 우뇌파동치유명상법입니다

- 2년회비 1백만원 월 회비 5만원 월~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별 도 - 스님이나 불자님중에 깨달음과 영혼의 자각에 관심이 있는분 중에 뇌의 잠재능력 개발과 우주의식을 체험하고자 하시는분 잠재능력개발,영가천도, 치유, 소원성취, 영적능력, 초월의식, 죽음 이해하기 이론과 빛과 고급영적승과의 교감 (2시간소요)

사전접수 - 기도수련모임 20명정도, 죽음에 대한 과정이해 교육과 명상실습 비용은 평생회비 500만분납 월회비 7만 기도 수련모임

강의와 수련기도내용

- 1.빙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 2.죽음 뒤에 벌어지는 영혼의 자각과 혼돈이해
- 3.죽음에 대한 올바른이해와 삶의 변화와 도약
- 4.불가의 깨달음의 단계적인 의식의 변화

- 인체전기파동의학원 여산법사 주말 토요일 오후 2시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10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10월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